

광주시민 절반 주말·휴일 집에 머물고 1년에 책 한권도 안읽어

2017 광주 사회조사

광주시민 2명 중 1명은 주말이나 휴일에 TV를 보는 등 집안에 머물고,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시민이 절반에 달했다.

광주시가 지난해 9월 표본가구로 4917가구 9808명을 조사해 14일 발표한 '2017 광주·전남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말이나 휴일에 어떻게 여가를 즐기는지'를 묻는 질문에 시민 32.6%는 TV 등을 시청한다고 대답했고, 21.3%는 휴식 및 가사라고 답했다. 절반 이상의 시민이 주말과 휴일 여행과 레저 등을 즐기는 대신 집안에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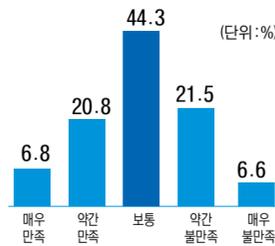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58.5%), '시간부족'(24.8%), '건강문제'(7.3%) 등이 꼽혔다. 이는 전년 전 '경제적 부담'(53.1%), '시간부족'(21.7%), '교통불편'(5.0%)과 비슷해 여전히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먹고, 자고, 일하고, 출·퇴근하고, 잡일을 정리하는 시간을 제외한 평균

여가 즐기지 못한 이유

58% "경제적 부담 때문"

■여가생활(여행·스포츠 등) 만족도



여가시간도 3시간 28분이었고, 주말과 휴일의 여가시간도 5시간 27분에 머물렀다.

한 달에 여가를 즐기기에 필요한 비용은 스포츠가 20만9569원으로 가장 높았고, 사교 15만5274원, 취미 및 자기개발 12만2545원이었다. 이처럼 여가를 즐길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많이 쓰지 못해 여가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 '여가생활 만족 여부'에 대한 질문에 44.3%는 보통, 약간 불만족 21.5%로 대다수가 만족한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 '경제적 부담'(58.5%)이 컸고, '시간 부족'(24.8%)이 뒤를 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책을 읽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52.4%는 '없다'고 답했고, 지난 1년 동안의 문화·예술·스포츠 관람도 스포츠(21.7%)에 집중됐다. 음악·연주회는 18.3% 뿐이었다.

한편, 광주 시민들은 광주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광주형 일자리 조성'(28.7%)을 꼽았다. 이어 '도시철도2호선 건설'(14.6%), '무등산 남도피야 조성'(12.0%),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10.2%)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는 '기업의 R&D 및 인력양성 지원'(25.9%), '교육훈련 지원'(17.8%), '청년인턴제 확대'(16.7%), '구직활동비 지원'(15.3%) 등을 거론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한 분산하고 상호 견제·통제 시스템 구축

靑, 4대권력기관 개혁안

공수처, 검사 직접 수사 가능
국정원은 대북·해외 업무만

청와대가 마련한 권력기관 개혁안의 핵심은 기존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 정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선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가장 '안보수사처'를 신설,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방안이 잡혔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과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비대와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기소 독점과 직접수사권·경찰 수사지휘권·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지만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정치권력의 이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탈검찰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개혁방향을 잡았다.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하도록 했다. 법무부의 탈 검찰과 등 기관 간 통제장치를 통해 검찰이 그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직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권력기관의 과거적 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경찰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민간조사단 임용을 끝마치는 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밀양 송전탑·제주 강정마을·평택 쌍용차·용산화재참사 등 5개 사안을 우선 조사대상 사건으로 분류했다.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검토 중인 검찰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대로 진상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정원은 이미 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012년 대선 당시의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 의뢰를 끝마친 상황이다.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재편"이라며 청와대의 발표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당도 "기본방향이 옳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만 높인 개혁이며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혁안 대부분이 입법 사안인 것 관련 "야당과 소통은 못 했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만들어졌는데 본격 가동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만나 뵙고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야권에서 '청와대가 윤곽을 이미 짜고 국회에 넘긴다'는 지적에 대해 "세세한 조문 작업은 국회의 몫이라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고 구상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17 전남 사회조사

전남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2016년 전남의 노령화지수는 166.6%로 전년 대비 7.3%포인트 급증했다.

특히 화순은 497.6%로, 65세 이상 인구(2만5364명)가 14세 이하(5097명)보다 무려 5배 가까이 많았다. 장흥(389.9%), 고흥(378.8%), 장성(380.3%), 해남(323.9%), 구례(322.4%), 보성(319.5%), 영암(303.0%)도 3배를 웃돌았다.

반면 출생아 수는 1만3980명으로 전년(1만5061명) 대비 7.2%포인트 감소했다. 가임여성 1명당 아기 출산율을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47명이었다. 시군별로는 해남이 2.42명으로 가장 높았고, 장흥이 1.01명으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가구 소득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었다. 특히 300만원 이상 중·고소득 가구 비중이 27.8%로, 2016년(43.7%) 대비 15.9%포인트 급감했다.

가구 소득의 주 수입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었다. 노년층은 복지정책 수혜 폭이 확대되면서 공공·사회 보조수입이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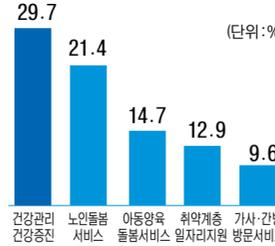
소득이 줄면서 가계 지출도 감소했다. 전남도민은 생활비 중 식료품비(30.6%)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어 도시지역은 주거비, 농촌지역은 보건 의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으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31.3%)와 함께 혁신도시를

화순 등 8개군 14세 이하 보다 노인인구 3배 웃돌아

2가구 중 1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중산층 붕괴'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비슷한 공공기관의 지역내 우선 채용(10.9%), 청년고용 지역할당제(5.5%) 등을 꼽았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업유치 다음으로 직업훈련 및 교육지원 필요성을 제시했고, 반면 30세 미만은 창업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전남도민 10명 중 6명(59.9%)은 스포츠·레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고, 10명 중 8명(80%)은 공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심지어 10명 중 4명(40%)은 영화조차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도민 44.1%는 독서를 하지 않고 있으며, 63.2%는 본인의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 10명 중 8명(80%)가량은 자기개발 및 취미·여가를 위한 평생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30~40대 부모 3명 중 1명은 타 지역으

로 자녀를 진학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이유는 대도시에서 교육시키고 싶어서(23.8%), 특성화된 교육을 받기 위해(22.4%), 좋은 대학 진학이 어려워(17.3%), 교육시설이 안 좋아서(15.8%) 등을 들었다.

전남도민이 걱정하는 질환 1위는 암(51.5%)이었고, 다음으로는 치매(17.1%)였다. 질환 발병을 걱정하는 이유는 의료비 부담(28.5%),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27.5%), 삶의 질 저하(21.6%) 등을 꼽았다.

앞으로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는 문화 생활공간과 보건의료시설을 들었다.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는 건강관리 및 건강 증진 서비스(29.7%)와 노인돌봄서비스(21.4%), 아동양육지원 및 돌봄 서비스(14.7%)를 꼽았다.

농도민 전남의 특성 상 도민 59.4%는 지속적 가뭄, 폭염, 혹한, 공기질 변화 등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남 흡연율은 15.9%로 6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고, 음주율은 51.3%로 2015년 대비 2.3%포인트 줄었다. 술을 끊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생활(60.0%)과 스트레스(33.9%)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6년 전남 가구당 평균 보유자산은 2억735만원이고, 가계 부채는 평균 2981만원이었다. 전남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노후에 부부 둘이서 생활하기를 희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농협 **90% 융자지원사업 / 선택순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면 빌려주셔서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오픈 1주년 기념 이벤트
지금 연락주세요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